

# 완주군 술 테마박물관 인기

### 지난해 임시개관 이후 월 평균 2600여 명 찾아 술빛기 강좌·발효체험 등 참여자 꾸준한 증가

완주군의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전시 및 체험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1일 완주군은 구이면 경각산 자락에 자리잡은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이 임시 개관한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11개월 동안 방문한 관람객이 총 2만8625명(2015년 1만 5763명, 2016년 1만286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월 평균 관람객은 2602명으로, 이중 87% 정도가 성인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은 총 면적

2만1594㎡, 연면적 4354㎡에 이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전시관과 야외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술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수장형 유물전시관, 주점 재현관을 비롯한 9개의 전시공간에서 5만여점에 달하는 방대한 유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종에는 전통주, 맥주, 와인 만들기 및 막걸리 심화과정 등 전문 강좌와 술 빛는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전문강사가, 주말에는 주말 가족영화 상영, 어린이 발효체험을 진행하는 등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관심을

을 이끌어내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는 연 50회의 술빛기 전문강좌 및 4회의 기획전시가 운영될 예정이고, 야외놀이터까지 조성돼 많은 관람객이 찾음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전시 및 체험시설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이 술과 발효라는 테마를 가지고 누구나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즐거움과 배움이 넘치는 박물관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며 "술 박물관 외에도 주변에는 모악산, 도립미술관 등 여러 문화시설을 위치해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박물관을 찾아 우리 술에 담긴 이야기를 문화로 꽃피운 것을 감상하는 등의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군은 지난 달 31일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무주 민박안전 우리 스스로 챙긴다

### 군, 6개 읍면 사업자 대상 식품위생·소방안전교육 실시

무주군은 지난 달 31일 농업기술센터 농민의 집(농민마당)에서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농촌 민박의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증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 관내 농촌 민박사업자 70여 명이 참석해 소방과 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관련 교육을 받았다.

이날 강사로는 무진장소방서 박재균 방호구조화장교와 위생교육 전문가 김인경 강사가 초빙됐으며 4시간 동안

관련 교육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 마을만들기사업소 배접숙 농촌활력 담당은 "농촌민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교육을 준비하게 됐다"며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민박 간 과다경쟁과 편법운영, 소비자 불만을 없애기 위한 주요 내용들과 사업자 준수사항, 안전조치 사항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업자나 이용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완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 군 의회·군 계획위 거쳐 도로 등 43개소

완주군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해제 및 변경한다.

2015년 말 기준, 완주군 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04개소, 공원 4개소 등 총 245개소다. 총면적은 1,288,014㎡, 관련 사업비는 3,099억원에 달한다.

이에 군은 2015년도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타당성검토 용역을 수행해 시설의 필요성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을 검토했다. 총 245개소 중 폐지검토시설39개소, 조정(부분폐지)시설 4개소로 분류하고, 2015년도 정례회 때 보고했다.

군의회는 제2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총43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및 변경을 권고하

였으며, 이번에 폐지·변경되는 시설은 도로 41개소, 녹지 2개소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2000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실행되는 2020년 7월 1일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 권고를 통해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 진안고원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활성화 '맞손'

### 군-우체국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은 전북지방우정청 진안우체국(국장 송화숙)과 지난달 31일 진안고원의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진안우체국은 전북달팽이장터에 진안고원의 우수 농·특산물을 입점하여 진안지역 상품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진안군은 전북달팽이장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군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은 전북달팽이장터에 진안고원 상품을 입점하거나 준비 중인 15개 업체에서 판매하는 대표 상품들을 전시하여 전북달팽이장터 홍보 및 진안의 우수 농·특산물을 알리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고원 농·특산



진안군은 지난달 31일 진안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물은 고향지에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탁월해 품질이 우수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우체국이 힘을 합치면 농가소득증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병수 전북지방우정청장은 "농·특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에 전북달팽이장터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꽃으로 물든 아름다운 무주 기대하세요

### 군, 금계국 등 무료 분양

무주군은 '금계국'을 비롯한 '꽃 양귀비'와 '투드베키아' 등 "꽃묘" 2만 5천여 본을 지난 달 30일부터 관내 관공서와 마을, 학교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꽃묘"들은 무주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가꾼 것으로, 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지역경관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계절과 어울리는 예쁜 꽃들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에

심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공부에 지치고 더위에 지쳐가는 아이들이 형형색색 꽃을 보며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군에서는 앞으로도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보급용 "꽃묘" 가꾸기와 분양에 정성을 기울일 방침으로,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장원 연구개발담당은 "소박하지만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등 정서안정에 효과가 좋은 것들로 엄선해 품종 수를 늘려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경찰, 군청과 전화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에서는 지난달 31일 무주경찰서(서장실)에서 한도연 서장과 황정수 무주군수가 한 자리에 모여 관내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 자리는 최근 급증하는 노인대상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범죄의 심각성 및 지속적인 예방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향후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에 동참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무주서장은 "무주경찰청의 협조에 감사하며, 관공서와 경찰서가 힘을 모은다면 그 예방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MOU체결을 통한 무주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벨트가 되 줄 것"을 부탁하며 협력체제의 공고한 구축을 강조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 국립농원

### 장수군 생태계교란종 퇴치 나서

장수군은 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을 전개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저수지에 서식하고 있는 큰입배스 퇴치를 위해 인공 산란장을 설치해 산란기 배스알 제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서식 중인 큰입배스 수매사업을 전개, 토종 어종을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수매사업은 뜬봉샘 생태공원에서 실시되며 수매대상은 관내에서 장수군인이 포획한 큰입배스로 가격은 1kg당 5,000원으로 예산 소진 시 지급된다.

군은 큰입배스 퇴치사업과 병행해 돼지풀, 애기수염 등 우리나라 고유생물의 서식지 파괴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는 생태교란생물에 대해 4월부터 1일 6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제거사업을 전개, 생태교란생물의 꽃이나 종자 생산 이전 제거로 생태계 회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뜬봉샘 생태공원(063-350-25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유용미생물 교육 '호응'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는 지난달 31일 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교육을 기술센터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태민 연구원(두산에코비즈넷)을 초빙하여 유용미생물의 이해와 효과적인 사용방법, 농업 현장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미생물을 공급받은 농가 중심으로 과수, 원예, 축산 분야 등 농업 적용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참여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서영화 소장은 "매년 유용 미생물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미생물의 이해를 바탕으로 작물 토양 환경개선과 농산물 품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미생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365㎡ 규모로 복합관(EM), 광합성균, 효모균 등 5종의 미생물을 연간 150톤 생산해 관내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발효폐비 생산 및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 공무원노동조합 임금협약

진안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진안군지부(이하 공무원노동조합)는 지난달 30일 이항로 군수, 공무원노동조합 강신국 지부장을 비롯해 노사양측 교섭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군과 공무원 노동조합은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3월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협약안을 만들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인상, ▶호봉가산금 인상, ▶교통비와 급식비 등 수당 신설, ▶상여금 추가 지급, ▶명절휴가비 추가 지급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던 각종 수당 등을 신설하고 임금수준을 도내 평균 이상으로 인상하는 등 공무원 근로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였으며, 인상분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은일을 도맡아 하는 공무원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노조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행사문의  
전안군청 전학산입재  
063-430-2951